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0년 1월 18-25일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20, *They Showed Us Unusual Kindness*(cf. Acts 28:2),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http://www.christianunity.va/content/unitacristiani/it/settimana-di-preghiera-per-l-unita/settimana-di-preghiera-per-l-unita-dei-cristiani-2020.html>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0년 1월 18-25일

제1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25일

편 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발행인 · 김희중

발행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서울시 광진구 명곡로 74

전 화 · 02-460-7582~3

팩 스 · 02-460-7585

<http://www.cbck.or.kr>

e-mail: sales@cbck.or.kr

등록 1957년 7월 28일 제2-109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표지: St. Paul at Malta(Adam Elsheimer[1578-1610])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0년 1월 18-25일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사도 28,2 참조)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 세계 교회 협의회 신앙 직제 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차례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 주제 성구 · 8
- 주제 소개 · 11
- 2020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4
- 교회 일치 기도 예식 · 16
 - 예식 소개 · 16
 - 예식 순서 · 17
-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28
 - 제1일 화해: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 28
 - 제2일 빛: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드러내기 · 30
 - 제3일 희망: 바오로의 메시지 · 32
 - 제4일 신뢰: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 34
 - 제5일 힘: 여정을 위한 빵 나눔 · 36
 - 제6일 환대: 각별한 인정 베풀기 · 38
 - 제7일 회심: 마음과 생각 바꾸기 · 40
 - 제8일 관용: 주고받기 · 42
- 물타의 교회 일치 상황 · 44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20년) · 48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54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교회 일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일치 기도 예식서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주제 성구

사도 27,18—28,10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추를 내려 보니 스무 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 보니 열다섯 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

다에 내렸다. 그때에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닻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두 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 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물은 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물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물으로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 주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떨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 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주제 소개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사도 28,2 참조)

2020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는 몰타섬과 고조섬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 Christians Together in Malta)이 준비하였다. 몰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월 10일 성 바오로의 몰타 표창 축일을 경축하면서 이 섬들에 그리스도 신앙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린다.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성구는 이 축일 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선정하였다.

이 이야기는 바오로가 로마에 수인으로 끌려가면서 시작된다(사도 27,1 이하 참조). 바오로는 사슬에 묶여 있으나, 하느님의 사명은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를 통하여 계속 이어진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자연의 무서운 힘을 마주한 인간에 대한 전형적인 드라마이다. 배의 탑승자들은 그들 밑으로 흐르는 바다와 거세게 이는 강력한 폭풍우의 힘에 지배된다. 이러한 힘에 휘둘러, 그들은 미지의 땅으로 떠밀려 가고 거기서 희망도 없이 길을 잃어버린다.

배에 탄 이백칠십육 명의 탑승자들은 서로 구별되는 집단들로 나뉜다. 백인대장과 그의 군사들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선원들의 기술과 경험에 의지한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슬에 묶인 수인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들의 목숨은 쉽게 희생될 수 있다. 그들은 즉결 처형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사도 27,42 참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드러나는 수인들의 목숨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분열을 커지게 하는 불신과 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 평화의 중심으로서 두각

을 나타낸다. 그는 자기 목숨이 그의 운명에 무관한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시고 또 자신이 섬기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사도 27,23 참조).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힘으로 그는 여정의 동반자들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모두가 용기를 얻는다. 바오로의 본보기를 따라 그들은 빵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 되어 그의 말을 믿는다.

이러한 묘사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주제, 곧 하느님의 섭리를 드러낸다. 백인대장은 기상 악화에도 항해를 결정하였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내내 선원들은 어떻게 배를 조종해 나갈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함께 머물면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로 구조된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사도 27,34; 참조: 루카 21,18)라고 한 대로, 배와 배 안의 모든 귀중한 짐은 잃어버려도 모든 이는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는 집착하는 많은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섭리에 내어 맡겨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다.

서로 갈등을 빚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어떤 섬에”(사도 27,26) 좌초된다. 한배를 타게 된 그들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들은 섬의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 환대 안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일치가 드러난다. 그들이 생면부지의 민족에 둘러싸여 불 가에 모여 있을 때에, 권력과 지위의 차이는 사라진다. 이 이백칠십육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냉혹한 힘의 지배에 있지 않으며 “각별한 인정”(사도 28,2)을 베푸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섭리의 품 안에 있게 된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그들은 불 가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 굶주린 그들은 먹을 것을 얻는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쉴 곳을 제공받는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바다에서 같은 공포를 맞닥뜨리고 있다. 독서에서 명시된 바로 그곳은(사도 27,1; 28,1 참조) 현대 이민의 이야기들에서도 나온다. 세상의 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빈곤을 피하여 육지와 바다로 그때처럼 위험한 여정을 하고 있다. 그들의 생명도

자연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인간의 거대하고 냉랭하며 가혹한 힘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냉혹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절박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항해에 부적합한 배에 그들을 태우는 사람들의 무정함, 구조선 파견 요청에 불응하는 냉혹함, 이민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돌려보내는 비정함이 있다. 이는 다만 몇몇 예시에 불과하다.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러한 이민의 위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무관심의 냉랭한 힘과 결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각별한 인정”을 보여 주며 하느님 사랑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는가?

환대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미덕이다. 이러한 환대를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려움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너그러움을 보여야 한다. 바오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각별한 인정을 보여 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였지만, 바로 그들의 각별한 인정 덕분에,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졌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에 대한 환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 신앙을 지닌 사람들과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험난한 여정과 우연한 만남 안에서, 당신의 교회와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뒷날 바오로가 로마에서 선포한 대로, 하느님의 이 구원은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졌다(사도 28,28 참조).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는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8일간의 성경 묵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일 화해: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제2일 빛: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드러내기

제3일 희망: 바오로의 메시지

제4일 신뢰: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제5일 힘: 여정을 위한 빵 나눔

제6일 환대: 각별한 인정 베풀기

제7일 회심: 마음과 생각 바꾸기

제8일 관용: 주고받기

2020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몰타의 그리스도 교회들은 2020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 9월, 몰타 천주교 주교회의와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또는 몰타 교회 일치 협의회: Malta Ecumenical Council)은 헥터 세리 몬시뇰(Msgr. Hector Scerri)에게 2020년 자료집 준비를 위한 교회 일치 초안 준비 위원회 구성을 맡겼다.

몰타 천주교 주교회의와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의 회원들,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여러 방면으로 힘써 주신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 Msgr. Prof. Hector Scerri(몰타 천주교 주교회의를 대표하는 초안 준비 위원회 위원장 겸 책임자,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 의장, 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 위원장, 몰타 대학교 신학대학 부학장, 로마 가톨릭 교회)
- Ms. Dorianne Buttigieg(초안 준비 위원회 총무, 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 위원)
- Revd. Kim Hurst(세인트 앤드류 스코츠 교회 목사, 몰타 발레타, 감리교)
- Elizabeth Lochhead(세인트 폴 임시 주교좌성당 신자, 몰타 발레타, 성공회)
- Msgr. Joseph Attard(고조교구 평신도와 교회 일치 운동 담당 주교 대리, 몰타, 로마 가톨릭 교회)
- Mr. Norman Alexander(세인트 앤드류 스코츠 교회 신자, 몰타 발레타, 스코틀랜드 교회)
- Can. Simon Godfrey(세인트 폴 임시 주교좌성당 사무처장, 몰타 발레타, 성공회)
- Dr. Patricia Micallef(떼제 모임 책임자, 몰타, 로마 가톨릭 교회)
- Ms. Judith Pugh(성공회 공동체 신자, 몰타 고조, 성공회)
- Subdeacon Alexander Kuryshev(세인트 폴 러시아 정교회 성당 신자, 몰타, 러시아 정교회)
- Revd. Archimandrite Nathanael Felesakis(세인트 조지 그리스 정교회 성

당 신부, 몰타, 그리스 정교회)

- Revd. Ionut Iftimia(세인트 존 뱍티스트 루마니아 정교회 성당 신부, 몰타, 루마니아 정교회)
- Mr. Noel Cauchi(복음주의 루터 교회[Andreasmemeinde] 대표, 몰타 발레타, 복음주의 루터 교회)
- Revd. Dr. Aurelio Mulè Stagno, SDB(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 위원, 몰타,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지역 초안 준비 위원회는 2018년 2월 12일, 3월 15일, 4월 20일, 5월 11일에 몰타 라바트 탈-비르투에 위치한 몰타대교구 대신학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지역 초안 준비 위원회가 마련한 자료집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 교회 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국제 준비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모임은 몰타 라바트에 위치한 몰타대교구 대신학교에서 2018년 9월 13일에서 18일까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이 지역 초안 준비 위원회,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 시클루나(Scicluna) 대주교, 몰타 주재 교황 대사 알렉산드로 데리코(Alessandro D'Errico) 대주교가 참석하였다.

교회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배는 섬나라인 몰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예식의 성경 독서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험난한 바다 항해를 묘사한다. 또한 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치로 나아가는 여정, 때로는 거센 폭풍이 치는 여정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식에 앞서 실제 배나 큰 모형 배를 예식 장소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사도행전 독서는 길이와 전문적인 항해 용어에 유념하여 매우 신중히 선포해야 한다. 다수의 독서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읽거나, 선포에 도움이 되는 드라마나 다른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말씀은 배와 가까운 지점에서 선포한다.

예식 순서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사도 28,2 참조)

- ✚ 인도자
- ◎ 회중
- 해설자

모임

입당 노래

입당 노래를 부르는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대표들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예식 장소로 입장한다. 그들은 모든 이가 보도록 성경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 뒤를 따른다. 성경은 예배 회중 중앙에 특별히 마련된 곳에 안치된다.

환영 인사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커다란 고통을 불러왔고 하느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은 몰타의 여러 그리스도 교회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의 그리스도교 역사는 사도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오로 성인은 60년에 몰타 해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장에서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몰타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몰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주요 섬인 몰타와 고조 그리고 여러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로 지중해의 중심, 곧 시칠리아 남단과 북아프리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지역은 문명과 문화와 종교의 교차로에 자리합니다.

오늘 그리고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 우리가 봉헌하는 기도와 묵상의 초점은 몰타 원주민들이 난파된 뱃사람들에게 베푼 환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습니다(사도 28,2 참조).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바치는 기도

선창자가 응송을 선창하면 전체 회중이 이를 반복한다.

✚ 사랑의 성령님, 이 모임에 오시어 저희 가운데 머무르소서.

◎ 오소서, 성령님!(또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 일치의 성령님, 그리스도인 일치를 향한 길을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 오소서, 성령님!(또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 환대의 성령님, 환대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 오소서, 성령님!(또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 자비의 성령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저희 안에 심어 주소서.

◎ 오소서, 성령님!(또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 희망의 성령님, 교회 일치 여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 오소서, 성령님!(또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용서와 화해의 기도

선창자가 응송을 선창하면 전체 회중이 이를 반복한다.

✚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서로 다른 교회와 전통을 따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실수와 불신과 악행을 저질렀나이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또는 키리에, 엘레이손!)

✚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빛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나이다. 오! 주님, 오로지 당신만이 참빛이시옵니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또는 키리에, 엘레이손!)

✚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미래의 희망과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또는 키리에, 엘레이손!)

✚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근심을 주었나이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또는 키리에, 엘레이손!)

✚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스스로 고립되어, 모든 이, 특히 이방인과 난민을 환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였나이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또는 키리에, 엘레이손!)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시편 103[102], 8, 11-12).

◎ 아멘.

찬가

살아 계신 하느님 말씀 듣기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이 당신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소서.

◎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 저희가 일치와 사랑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 당신 말씀은 저희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독서: 사도 27, 18—28, 10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7[106], 8-9, 19-20, 21-22, 28-30, 31-32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회중이 후렴을 노래한다.

◎ 주님은 거친 파도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네.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하셨네.
당신의 말씀 보내시어 낮게 하시고
구렁에서 그들을 구해 내셨네. ◎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감사 제물 올리고
환호하며 그분 업적 전하여라.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백성의 모임에서 그분을 높이 기리고
원로들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

- ◎ 주님은 거친 파도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는 복음 전에 (그리고 후에도) 낭송할 수 있다.

복음: 마르 16,14-20

- 주님의 말씀입니다.
-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당신께서는 기쁜 소식이십니다!

성경 묵상 또는 짧은 강론이 이어진다.

성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공통된 신앙을 선포합니다.

-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

기도하는 동안, 다양한 공동체 회원들이 8개의 노(또는 모형 노)를 회중 안으로 가져온다. 각각의 노에는 '화해, 빛, 희망, 신뢰, 힘, 환대, 회심, 관용'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적혀 있다. 노를 하나씩 내어놓을 때마다 각각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바친다. 노를 높이 들어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배 근처나 배 안에 놓고 잠시 침묵 기도를 드린다. 이때, 해설자가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고 모든 이가 함께 이에 응답한다.

- ✚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혼자서 맞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를 저을 때에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움을 마주한 우리는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를 깨닫습니다.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가운데, '화해'가 적힌 첫 번째 노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노들을 차례차례 앞으로 가지고 나간다.

- 자애로우신 하느님, 교회에 상처를 남기고 계속해서 저희를 갈라놓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 ◎ 화해를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향로를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 ◎ 빛을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삶의 폭풍우가 저희를 덮칠 때에, 당신의 섭리에 대한 저희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소서.
- ◎ 희망을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많은 분열을 조화로, 불신을 상호 인정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 ◎ 신뢰를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사랑 안에서 정의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 힘을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위험이나 어려움에 놓인 형제자매를 환대하는 데 방해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소서.
- ◎ 환대를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마음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저희가 당신 치유를 전하는 주역이 될 수 있게 하소서.
- ◎ 회심을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선물임을 알아보고, 저희 손으로 연대 안에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게 하소서.
- ◎ 관용을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기도

-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 ✝ 몰타인들은 바오로와 그의 일행을 각별한 인정으로 환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기쁜 소식의 선포로 함께 파견된 우리

- ✝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열망하는 우리는
이러한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노력합니다. (잠시 침묵 기도를 한다.)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강복을 줄 수 있다.

- ✝ 성부이신 하느님, 저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셨으니
저희를 하느님 빛의 참된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 아멘.

- ✝ 성자이신 하느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희를 속량하셨으니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모범을 따라 다른 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 아멘.

- ✝ 성령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희를 굳건히 하시어
저희가 삶에서 난파의 위기들을 견디고 구원의 해안에 도달할 수 있게 하소서.

◎ 아멘.

-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복하소서.

◎ 아멘.

◎ 우리, 함께 가서 놀라운 하느님 사랑을 선포합시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마침 성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제1일

화해: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사도 27,18-19,21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85[84]

루카 18,9-14

묵상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수 세기에 걸쳐 상호 불신과 비방과 의심의 앙금을 두텁게 쌓아 올렸다. 그럼에도 지난 세기 동안 교회 일치 운동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서로 다른 전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준다. 우리는 과거의 앙금으로 서로 다가서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바라고 계신다!

기도

용서의 하느님,
저희가 함께 나누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치는 그 기억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저희를 화해로 이끄시어
저희가 성령을 통하여
사랑으로 증오를,
온유로 분노를,
신뢰로 의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성자이며
저희 형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2일 빛: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드러내기

사도 27,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
져 버리고 말았다.”

시편 119[118],105-110

마르 4,35-41

묵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이요 인도자이시다. 그리스도의 빛과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과 분열이 깊어진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그리스도의 빛을 흐리게 하거나 때로는 그 빛을 완전히 가려 버린다면, 교회 밖에 있는 선의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찾으며 서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거울처럼 더 밝게 비추며,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참다운 징표가 된다.

기도

하느님,
당신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니
당신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길을 잃고 헤매나이다.
저희를 밝혀 주시어
저희가 말씀의 빛으로 하느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소서.
저희 교회들이
인도와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주시는 하느님 현존을 열망하게 하소서.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서 하느님 빛을 가리는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데에 필요한 정직함을 주시고
당신 빛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데에 필요한 은총을 주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저희 제자들을 부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3일 희망: 바오로의 메시지

사도 27,22,34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7[26]

마태 11,28-30

묵상

서로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교회들과 전통들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주 낙담한다. 사실 어떤 이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달성 불가능한 몽상으로 치부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일치가 그들 그리스도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하느님 사랑의 섭리를 믿으며 굳건한 믿음과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써 가시적 일치의 은총을 청하자. 주님께서는 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그 일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기도

자비의 하느님,
길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오니
하느님 희망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자께서 수난 전날 밤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들이 일치를 바라며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4일 신뢰: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사도 27,23-26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55]

루카 12,22-34

묵상

폭풍 한가운데에서, 바오로의 격려와 희망은 함께하는 일행의 두려움과 절망과는 대조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공동 소명에는, 반대받는 표징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불안으로 갈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섭리를 믿으며 희망의 증인으로 우뚝 서라는 부름을 받는다. ‘하느님께서서는 굽은 선들 위에도 올곧게 써 내려가신다.’(Deus escreve certo por linhas tortas.)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환란에 맞닥뜨려도 물에 빠져 죽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하느님의 자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는 각자 겪는 고난에 아파하고 울부짖으며
질병과 불안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겪고
두려움에 움츠러드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희 교회들이 당신 섭리와 보살핌의 징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느님 아드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어
성자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 안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5일 힘: 여정을 위한 빵 나눔

사도 27,33-36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시편 77[76]

마르 6,30-44

묵상

음식을 먹으라는 바오로의 권고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앞날에 힘을 준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에서 용기로 나아갔듯이, 이러한 빵의 나눔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찬 곧 성찬례는 우리 여정에 양식이 되어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방향을 재정립해 준다. 우리는 힘을 얻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과 예배에서 핵심이 되는 빵의 나눔은 우리 힘을 북돋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헌신하게 해 준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만찬의 식탁에 모여 앉아 같은 빵과 잔에서 힘을 얻을 날을 고대한다.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수난 전날 밤에
벗들과 빵을 함께 찢개시고 잔을 함께 나누셨나이다.
비오니, 저희가 더욱 깊은 친교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바오로와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본받아
자비와 연대와 화합의 다리를 놓도록 힘을 북돋워 주소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주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6일 환대: 각별한 인정 베풀기

사도 28,1-2.7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 주었다. ……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시편 46[45]

루카 14,12-24

묵상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고 후유증을 겪은 뒤에 해안으로 떠밀려 온 사람들은, 섬 주민들이 베푼 실질적 보살핌에서 각별한 인정을 체험한다. 이러한 인정은 우리가 공동으로 지닌 인류애를 보여 준다. 복음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곤경에 빠진 이들을 보살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다(마태 25,40 참조). 나아가 우리가 힘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들에게 애정 어린 인정을 베풀 때에, 우리 마음은 가난한 이를 각별히 마음에 두시는 하느님 마음과 같아진다. 어떠한 문화와 종교를 가졌든, 이민이든 난민이든, 이방인을 따듯이 맞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믿음 안에서 다가가 손을 내밀도록 부름받는다.

기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하느님,
 저희 마음에 환대의 마음을 깊이 심어 주소서.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간혀 있을 때에 찾아 줄 것을 청하시는 당신께
 저희 눈과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저희 교회들의 동참으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립이 해소되고
 모든 이를 따뜻이 맞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허물게 하소서.
 가장 작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7일

회심: 마음과 생각 바꾸기

사도 28,3-6

“그런데 바오로가 뿔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 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시편 119[118],137-144

마태 18,1-6

묵상

원주민들은 바오로를 살인자라고 오판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생각을 바꾸었다. 독사를 만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섬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오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화해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따금 다른 전통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한다. 이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회심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교회들이 다른 이를 위협자로 보는 사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시각을 떨쳐 버리고 일치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참회의 마음으로 당신께 의지하오니
저희가 당신 진리를 성실히 찾는 가운데
다른 이에 대한 편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깊은 친교로 교회들을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저희 서로는 물론, 저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의로우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8일 관용: 주고받기

사도 28,8-10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시편 103[102],1-5

마태 10,7-8

묵상

이 이야기는 내어 줌과 받아들이심으로 가득하다. 바오로는 섬 주민들이 베푸는 각별한 인정을 받았고, 푸블리우스의 아버지와 다른 병자들을 고쳐 주었다. 이백칠십육 명의 사람들은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물품들을 풍부하게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별한 인정을 보여 주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나 내어 주려면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이 우리에게 베푸는 많은 친절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이 친절한 행동들 또한 주님의 자비와 치유를 가리킨다. 주님께 치유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 줄 책임이 있다.

기도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자비로운 사랑의 은총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사랑이 저희를 낮게 하고 힘을 주나이다.
비오니, 저희 교회들이 서로를 통하여 받는 당신의 은총을
언제나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모든 이를 향하여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몰타의 교회 일치 상황*

지중해의 섬나라인 몰타는 바오로 사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배가 좌초되어 몰타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곳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하였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는, 바다에서 거센 폭풍을 만나 ‘하느님 섭리에 따라’ 배가 좌초되었으나 배에 타 있던 이백칠십육 명이 모두 안전하게 물으로 나와 환대를 받은 이야기가 상세히 실려 있다. 또한 몰타에서 바오로가 치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도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몰타는 그 파란만장한 오랜 역사 동안,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제국, 아랍, 노르만, 슈바벤, 아라곤 왕국, 성 요한 기사단,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1964년에 몰타는 영국 연방에 속한 독립국이 되었고, 2004년에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몰타 주민들과 그 자매 섬인 고조 주민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대략 인구 43만 명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신자이지만, 다른 전통에 속하는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도 있다. 교회 일치 운동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여러 문명과 종교, 무역, 이민의 교차로가 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몰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매우 친절하다. 몰타 사람들은, 현재 여러 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에 다양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풍요로움도 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다른 교회들에서 온 구성원들이 다수를 이루며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몰타에 주둔하게 된 영국의 강력한 육해군

군인들과 그들과 동행하여 온 군종 사목자들이 앞장서서 장로교회와 성공회 연합과 감리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적절하고 품위 있는 예배 장소들을 지어 나갔다. 세인트 앤드류 스코츠 교회는 1824년에 기공되어 1844년에 준공되었다. 성공회의 세인트 폴 임시 주교좌성당은 1839년에 기공되어 1844년에 준공되었다. 장로교회 건물은 1883년에 준공되었다. 크림 전쟁과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몰타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해군 요충지가 되었다. 몰타에는 중요한 조선소도 건설되었다.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는 몰타에 거주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키프로스 사람들이 1816년에 세웠다. 1990년대부터 여러 정교회들의 신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몰타에 와서 정착한 동유럽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세르비아와 러시아 정교회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교회가 포함된다. 또한 특히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온 이들을 비롯하여 동방 정교회 신자들의 상당수가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몰타로 피난 온 이들이었다. 중동,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건너온 이들로 이루어진 정교회 그리스도인 소공동체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이 폭넓은 다양성 덕분에, 몰타의 교회 일치 상황은 참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 몰타에서 처음 교회 일치 만남들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단체가 몰타 주둔 영국 군대의 군종 사목자들과 정기 만남을 가졌다. 또한 몰타 성경학자들과 여러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들의 성직자 사이에 협력이 자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회 일치 만남들이 대부분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몰타 성서 공회는 여러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직자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몰타에서 첫 공식 교회 일치 예식들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거행되었다. 나아가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와 ‘루터-가톨릭 교회 대화’의 첫 모임들이 몰타에서 열렸다. 1977년 10월에 가톨릭 몰타대교구장 조셉 머시예카 대주교는 ‘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

원회의 임무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를 장려하고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1995년에 예수회의 모리스 에미니언 신부가 오늘날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몰타 교회 일치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여러 교회의 대표들은 두 달마다 모여, 교회 일치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개 대화 모임을 조직하며, ‘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와 협력하여 교회 일치 예식의 내용과 실행을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교회 일치 예식은 1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 거행되고, 또 다른 예식이 성령 강림 대축일 전후에 거행된다.

‘함께하는 몰타 그리스도인들’의 회원들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성공회, 스코틀랜드 교회, 감리교회, 복음주의 루터 교회, 그리스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가 있다. 제칠 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몰타 교회 일치 협의회’의 일원이다.

몰타에서, 교회 일치 관계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일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는 깊은 존경과 진정한 협력이 빛을 발한다. 몰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정교회들이 적절한 예배 장소를 찾는 데에 중요한 도움을 주어 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 고조교구도 마찬가지로 그 문을 활짝 열고 성공회 신자들과 개신교 전통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몰타에는 통상적인 교회 일치 예식 외에도 정기적인 교회 일치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활동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주는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내외 ‘디아코니아’(diaconia) 공동 프로젝트.
- 발레타의 세인트 폴 성공회 임시 주교좌성당에서 교회 일치 동반 교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아홉 가지 말씀의 성탄 축제’.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 가톨릭 몰타대교구장 주교가 초청하여

열리는 교회 일치 연회.

- 병자와 어르신 방문, 캐럴 부르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들과 같은 공동 사업들.
- 특별한 수호 성인 축일들에 몰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행사 참여.
- 세인트 앤드류 스코츠 교회와 협력하여 푸드뱅크 지원.
- 매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기도와 찬미를 드리는 ‘등대 네트워크’.
- ‘몰타대교구 교회 일치 위원회’가 ‘몰타대교구 사목 교육 기관’의 협력을 얻어 조직한 ‘교회 일치 전공 고등 교육 학위 과정’에서 가르치는 데에, 여러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의 교역자들의 협력.
- 해마다 몰타 공화국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열리는 원탁 회의와 성탄절 며칠 전에 갖는 성탄 만찬.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 협력은 몰타 그리스도인 일치를 복돋우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몰타의 교회 일치 상황은 실제로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참으로 전 세계 교회 일치 대화의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20년)

세계 교회 협의회 신앙 직제 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에페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라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 모임)

1970년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1코린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히 수도원에서 준비 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2코린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 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 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필리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느님의 계획”(에페 1,3-10)
(호주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1요한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 모임)
-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로마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에페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태 6,10)
(옛 동독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 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1코린 12,3-13)
(미국 그레이무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 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편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 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1요한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 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코린 2,2; 콜로 1,20)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준비 모임)

- 1985년 “하느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에페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샹에서 준비 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 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 모임)
- 1988년 “하느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1요한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 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로마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릿지에서 준비 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 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편 117[116]편; 로마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 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그러므로 가라”(마태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 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라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옛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 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느님의 가족”(사도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 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느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한 15,1-17)
(신앙 직제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 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 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 하십시오”(2코린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 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로마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 모임)
- 1999년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묵시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 모임)
- 2000년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에페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라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 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불칸에서 준비 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편 36[35],6-10)
(유럽 주교회의의 협의회와 유럽 교회 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 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2코린 4,4-18)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 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 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1코린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 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데어주 프라스퍼러스에서 준비 모임)
- 2007년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르 7,31-37)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 모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 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예제 37,15-28)
(대한민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 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 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과 우정과 빵 나눔과 기도 안에서 이룬 일치(사도 2,42 참조)
(예루살렘에서 초안 준비. 시리아의 사이드나야에서 준비 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1코린 15,51-58 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 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카 6,6-8 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 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 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1코린 1,1-17 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 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
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1베드 2,9 참조)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20)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탈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2019년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명 16,18-20)
(인도네시아에서 초안 준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준비 모임)
- 2020년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사도 28,2 참조)
(몰타에서 초안 준비. 몰타 라바트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 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 직제 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 일치 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 교회 협의회(의 신앙 직제 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오로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 교회 협의회 신앙 직제 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 직제 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호주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가장 먼저 1975년 초안 준비.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 교회 협의회 신앙 직제 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